

“보행자 보이면 우회전 일시정지... 여전히 낯설어”

광주 광산구·서구 일대 집중단속 현장

1시간에 16건 적발... ‘범칙금 + 벌점 10점’ 부과 운전자 반발·실랑이 이어져...도로 정체 불만도

“보행자가 지나갈 때 멈추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시면 법 위반입니다.”

22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유동 인구가 많은 이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됐다. 이날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는 인력 과 장비를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현장에는 형광조끼를 착용한 경찰관 32명이 배치돼 차량 흐름을 관리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

다. 또한 우회전 이후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벌점 10점과 함께 부과된다.

단속 현장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단속을 의식한 일부 차량이 미리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광산구와 서구 일대 단속에서 약 1시간 동안 총 16건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단속 이후 경찰은 광주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사단법인 세이프 온 등과 함께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22일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서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진행하며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안내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서구 운천저수지

사거리 일대에서도 단속이 이뤄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항의와 경적 소리가 이어지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에 불만을 드러내며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잠깐 세우려던 것”이

라며 항의했고, 면허 확인 요구에도 즉각 응하지 않아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됐다.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는 “이런 규정은 처음 듣는다”며 당혹감을 드러내다가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한 번만 봐달라”,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반면 일부 운전자들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차분히 단속에 응했다.

단속 차량으로 인해 교통 흐름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면서 곳곳에서 경적이 울리는 등 불만도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5월 10일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다발 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엄전 노예’ 가해자 징역 3년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전직 염전주에 실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준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염전주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통장에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꾸미었으나 실제로는 A씨 가족이 해당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동생 B씨(58)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3·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인 D씨(62)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경찰 조사 대기 중 피의자 사망, 관리 소홀 논란

약물 복용 후 쓰러져... 정확한 부검 결과 1~2개월 소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피의자가 청산염(청산가리) 음독으로 숨지면서 경찰의 관리 소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 압송 이후 약물 복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여성 A씨가 피의자 대기실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쓰러졌다.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

졌다.

경찰이 전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체 조직·소지품 약물 검사 결과 A씨의 위장과 물통에서 청산염이 검출됐다.

A씨의 사인이 청산염 중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확한 부검 결과는 1~2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압송 이후 청산염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압송한 당일 오후 5시30

분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 A씨를 염려해 구급차를 불렀다.

오후 5시43분 도착한 구급차를 통해 측정된 A씨의 맥박과 혈압은 모두 정상이었다.

그러나 오후 5시51분 피의자 대기실에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던 A씨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구급차가 재차 호출됐다.

A씨는 오후 5시58분 도착한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한쪽 손목을 수갑에 채운 채 피의자 대기실의 철봉에 결박시킨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완도 냉동창고 화재 낸 이주노동자 송치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완도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1층 냉동고 주변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하면서 토치 램프를 사용하다 과실로 불을 낸 혐

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예폭시 도료, 샌드위치 패널 등 인화물질이 많은 곳에서 화기 사용에 유의해야 하는데도 무리하게 토치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내국인 60대 남성 B씨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유담그룹 계열사 3곳, 파산 수순

〈유담디앤씨·유담건설·유담엔지니어링〉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광주·전남 증권 건설사인 유담그룹 계열사 3곳이 신청한 법인 회생(법정관리) 절차가 폐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유담디앤씨·유담건설·유담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3일 회생 신청 연인 3곳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으나 회생계획안이 기한 내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면 이해 관계자들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폐지 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내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각 법인별 채권자 수는 지자체, 법인을 포함한 유담건설 934명, 유담엔지니어링 158명, 유담디앤씨는 채권자 1488명 등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 계열사인 유담건설은 지난해 기준 전국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의 중견건설사다. 신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나, 법인 회생 개시에 따라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유담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 여주 스마트물류센터, 광주 통합공공임대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유담엔지니어링은 광주시·전남도 청사, 광주 월드컵경기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내 주요 대형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맡기도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사건번호 : 2026년 5221 상속한정승인
○ 사망자 : 황 노영금(59027-1111111111)
○ 피후수 : 전남 곡성군 도평동 녹동신영길 47, 103호
○ 원상 노영금 대역에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제한재에 대한 공고, 폐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에 제한 또는 승인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공 고 인 : 노은진(961029-2111111111)
○ 제한승인공고소 : 광주 광산구 영백동로132번길 22, 203동 402호(수한동, 수한2재무관리파트)
○ 공 고 기 간 : 광교로문자4개년
○ 한정승인승계일 : 2026년 3월 19일

2026년 4월 21일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묘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산 115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충남 계룡시 두머면 제1산단로 132, 제단법인 아니스튜디오
7.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8. 신 고 처 : 주식회사 천지인(010-9070-1626 조성웅)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바람.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공고인 주식회사 천지인

NACOS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인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디카 있으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박 자태의 성지, 전남 투룬산 대풍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륵산 불희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